

---

## 인체의 신비와 건강IX- 귀

---

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어떨까?

적막강산에 있는 듯 세상이 조용해져 버린다면, 삶의 즐거움은 한없이 반감될 것이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자연의 소리, 생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생활의 활력이자 기쁨이 된다.

소리를 듣게 해 주는 우리 몸의 소중한 기관인 ‘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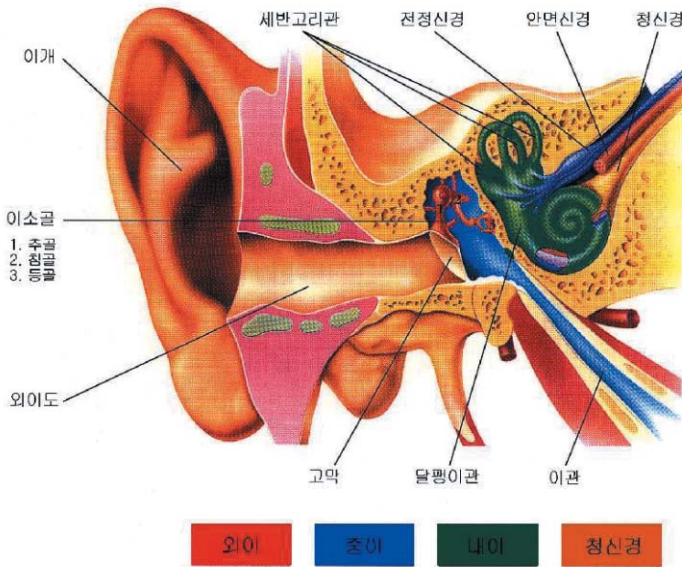
과연 소리는 어떻게 해서 들을 수 있고, 귀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또 소중한 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번 호에서는 인체의 신비 귀에 대해서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이광선 교수와 충남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용호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소리는 에너지가 공기 입자를 타고 진동하며 퍼지는 것이다. 마치 수면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소리 에너지도 공기 중에 비슷한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 나간다. 사람이 그 같은 파동을 감지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그 때문에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다. 인체 여러 기관의 기능 어느 하나 신기하지 않고 오묘하지 않은 게 없지만, 물리적 파동을 의미로 변환시켜 이해하는 귀의 기능이야 말로 그 중 가장 오묘하고 경이로운 것 같다. -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 광 선 이비인후과 교수 -



# [인체의 신비-귀]에 대한 이야기

## 귀의 구조



사람의 귀는 귓바퀴에서 귓구멍으로 고막에 이르는 부위를 '외이'라고 하고, 고막 안쪽의 공간을 '중이', 그 안쪽의 뼈로 둘러싸인 부분의 구조물을 '내이'라고 한다.

**외이**는 울퉁불퉁한 얇은 연골로 이루어진 귓바퀴와 '외이도'로 이루어지는데, 귓바퀴의 연골은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피부로 덮여 있다. 외이도는 귓구멍 입구에서 고막까지를 말하는데 길이가 약 3.0~3.5cm이고, 직경 7~9mm 정도의 관으로 S자형으로 약간 굽어 있다.

**중이**는 고막과 그 안쪽의 공간을 말하며, 이곳에는 '추골', '침골', '등골'이라는 작은 뼈 3개가 있는데, 이들은 고막의 진동을 내이에 전달하여 준다. 이 공간은 앞쪽으로는 '이관'에 의하여 코의 뒤쪽과 연결되고, 뒤쪽으로는 '유양동'이라는 귀 뒷부분 뼈의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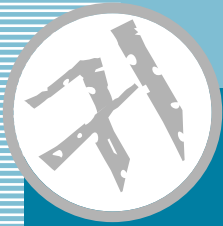
**내이**는 '와우', '전정'과 '반규관'으로 이루어지는데, 와우는 달팽이 껍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소리가 이곳에서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 신경을 통하여 뇌로 전달된다. 전정과 반규관은 평형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 귀의 기능

귓바퀴는 외부의 소리를 집중시키며, 모아진 소리는 귀 안으로 들어가 고막을 진동하게 된다. 고막은 탄력이 뛰어난 아주 얇은 막으로 공기 입자의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할 수 있다. 사람이 말을 알아듣는 것도 따지고 보면 소리 에너지가 고막을 진동시키는 방법에 좌우된다.

고막 안쪽, 중이(中耳)에 있는 이소골(아주 작은 세개의 뼈로 구성)은 오디오의 앰프와 같아서, 소리를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증폭된 소리는 다시 내이(內耳)에 있는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며, 이 속에 있는 수만 개의 미세한 유모세포(hair cell)는 음파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신호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세포가 노화 등의 이유로 감소하거나 손상되면 소리가 들려도 그것을 감지하고 이해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달팽이관에서 변환된 전기신호는 다시 청(聽)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며, 뇌에선 그 같은 전기신호를 해석해서 소리의 의미를 알아낸다. 예를 들어 '엄마'라고 말할 때 발생하는 음파가 달팽이관에서 '1234'란 전기신호로 바뀌어 뇌에 전달되면, 뇌는 '1234'를 '엄마'란 의미로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아기가 말을 배우는 것은 1234란 신호는 엄마, 2345란 신호는 아빠, 1122란 신호는 할아버지란 식으로 특정 전기신호를 암기하는 과정이다. 6



## [인체의 신비-귀] 내 귓속에 무슨 일이?

### ■ 중이염

사람의 귀는 해부학적으로 크게 3가지 부위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가운데 부위를 ‘중이’라 하고,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중이염이다.

주로 소아에서 흔하지만, 성인에서도 종종 생기고 겨울과 초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 ◎ 원인

원인으로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또는 그 밖의 다른 여러 종류의 병원체가 중이(中耳)에 침입해서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서 급성과 만성, 재발성으로 나뉜다.

### ◎ 증상



우리 귀는 아주 예민한 기관이라 조그만 이상에도 크게 불편을 느낀다. 흔히 경험하는 것은 수영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또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탔을 때 귀가 먹먹해지고 심하면 통증도 있게 된다. 그것은 고막이 안으로 밀려들거나 밖으로 밀려나와서

울림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막에 손상이 있는 경우 소리를 올려주지 못해서 난청이 발생한다. 중이 내의 작은 뼈들이(이소골) 손상을 받는 경우에도 난청이 오는데 만성 중이염이 있는 경우 이 작은 뼈들이 녹아서 소리 전달이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중이염의 증상은 고막 손상으로 인한 난청이 있고 염증으로 고막 안에 물이 차거나 귀젓(이루), 귀울림(이명), 두통 등이 있다.

〈소아중이염〉 : 중이염일 때 어른은 그렇지 않지만 어린이는 어디가 아픈지를 분명히 말하지 못해서 그저 머리가 아프다고만 하는 경우가 많다. 열이 있을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고막이 충혈되어 빨개지며 열이 난다. 그리고 귀가 막힌 듯한 느낌이나 압박감이 들며 이어 귀에 통증이 일어난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들은 손으로 귀를 문지르면서 자지러지게 운다. 젖도 잘 먹지 않고, 잠도 잘 자지 못하면서 보채는 게 특징이다. 발열증상도 있으며 병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가벼운 것으로는 38℃정도이며, 중한 것으로는 39℃내외가 되어 오한을 수반하는 수가 있다. 갓난아기의 경우에는 40℃까지 열이 올라 경풍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

### ◎ 치료

급성 중이염인 경우 보통 항생제 등으로 치료가 잘 된다. 2~3회 항생제를 쓰면 보통 열도 떨어지고 통증도 없어지지만 약은 적어도 10일 이상 계속 써야 재발을 방지하고 후유증을 막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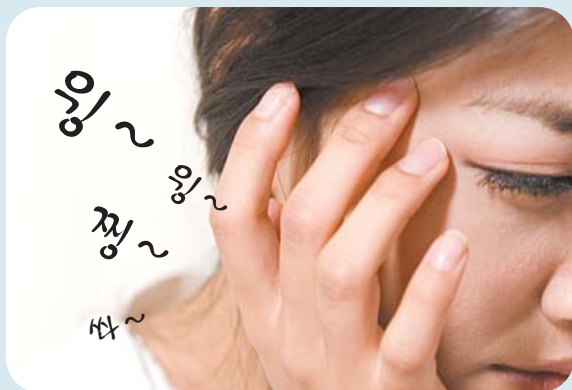
만성 중이염은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수술을 하기에 환자의 여건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를 한다. 즉 외래를 방문하여 귀안에 고여있는 염증을 제거하고 귀약을 사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한다. 하지만 만성 중이염의 궁극적인 치료는 수술이다.

가능한 한 안정하며, 소화가 잘 되고 수분이 많은 식사를 충분히 한다.

귀에 통증이 심할 때는 귀의 들레에 냉찜질을 하는 것도 좋다.

고름이 나올 때는 귀볼 부위를 청결하게 해줘서 습진이나 종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 이명



이명이란 외부 음원의 자극과는 관계없이 한쪽 또는 양쪽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는 증상으로 동반증상 없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개 난청, 현기증, 이충만감, 이통 등의 증상과 두통, 전신권태 등의 전신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외부에서 음자극이 없는데도 소리를 느끼는 것으로 정신분열증에서 볼 수 있는 환청과는 달리 귀에서 뇌까지 소리전달 과정 중 어느 부분에서 이상이 생겨 환자에게 실제로 소리가 간헐적 또는 연속적으로 들리는 것을 말한다.

### ◎ 원인

청각기 자체에서 생기는 것(청각성)과 근육, 혈관 같은 청각기 주위 구조에서 생겨 청각기를 통해 느껴지는 것(비청각성)으로 나누고 이명을 주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대부분은 청각성이며, 비청각성인 경우 원인 질환이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청각기관의 손상을 일으킨 원인으로는 돌발성 난청과 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나이에 따른 변화(노인성), 강한 소음에 따른 손상(소음성), 메니에르병, 중이염, 두부손상, 약물 등이 있고 드물게 신경종양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비청각성 이명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관기형, 혈관성 종양, 빈혈, 갑상선 질환, 당뇨와 근육경련, 턱관절이나 목뼈의 이상 등이 있다.

그러나 대개 과로로 인하여 악화되고 주위가 조용할 때 심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이명이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짐작되는 원인으로는 과도한 피로, 스트레스, 소음 환경, 과음이나 흡연, 약물, 신장기능의 저하 등 환자 자신의 생활습관이나 환경적인 문제들을 의심할 수 있다.

### ◎ 증상

이명의 대부분은 주파수가 높은 ‘짹’ 하는 금속성의 소리인데, 귀울음이 ‘어떤 소리일 때는 무슨 병’이라는 식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 소리의 성상은 ‘잉~’(전선줄 우는소리, 기계소리), ‘짜~’(김빠지는 소리)하는 소리와 별레우는 소리(귀뚜라미, 매미 등), ‘짹’ 하는 소리, 바람소리, 물 흐르는 소리 등의 단순음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전체의 3/4 정도이며, 이런 소리들의 복합음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 ◎ 치료

전신적인 다른 동반질환이 있을 때 이에 대한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고, 증상에 따른 약물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원인이 확실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다. 정신과적 상담 및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술, 담배, 약물은 피하고 난청이 동반되는 이명 환자에게 보청기를 착용시키면 청력이 증강되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감소되어 이명이 차폐되는 효과도 있다.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강한 소리를 피하는 것이다. 사격, 음악, 오락, 스포츠, 일터에서의 다양한 강한 소리가 발생하게 된다. 부득이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 할 경우에는 꼭 소리전달을 막는 기구나 장치를 사용해야만 한다. 또 앞에서 언급한 약제의 투여를 피하고, 꼭 써야 할 경우는 혈중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 내이에 축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과도한 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며 과음이나 흡연을 자제한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유지하고 큰 소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을 피한다.

염분의 섭취량을 줄이고, 신장기능의 저하 또는 질환이 있을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 난청



### ◎ 증상

난청은 크게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음성 난청은 소리가 달팽이관까지 잘 전달되지 않아 생기는 난청으로 대부분 중이에 생긴 병이 원인이다. 중이염이 심해져 중이에 물이 고여 있거나, 고막이 찢려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대부분 달팽이관 내부의 유모세포나 청신경의 이상으로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유모세포 등이 파괴되면 현대의학으로도 되살릴 수 없다. 달팽이관은 너무 예민해서 수리는커녕 근처에 손도 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거나, 후천적으로 달팽이관이 손상된 경우엔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 외엔 현대의학으로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 〈난청의 일반적인 증상들〉

1. 질문을 반복한다.
2. 혼자말로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3. 화자와 청자사이의 거리에 따라 말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
4. 주변 소음이 있을 때 듣기에 어려움이 있다.
5.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크게 듣는 것을 좋아한다.
6.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7.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있다.
8. 여성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있다.

9.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
10.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말한다.
11. 가족구성원, 친구, 회사동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은 청력손실이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듣는다.
12. 청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당신 귀에 손을 가까이댄다.
13. 소리의 발생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14. 다른 쪽 귀에 비해 한쪽이 잘 들린다.
15. 소리에 긴장한다.
16. 강의, 영화감상, 회의 참석 후에 쉽게 피곤하다.
17. 당신의 말에 변화를 경험한다.
18. 청자의 얼굴이 당신에게 보일 때 쉽게 알아듣는다.
19. 평상시보다 대화에 실수가 더 많다.
20. 단체모임에서 듣는데 어려움을 경험했다.
21. "무엇이라고?(What)"와 "저어...(Huh)"를 종종 사용한다.
22. 단체모임을 피한다.
23. 종종 추측해서 듣는다.
24. 눈을 긴장시켜 힘들게 한다.
25. 작은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

### ◎ 원인

1. 급성/만성/삼출성중이염 : 난청이 어린이에게서 가장 흔한 이유는 감기로 인한 중이염이다. 어린이들을 급성중이염 조기 치료를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만성중이염으로 이어져 청력이 급속히 감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약물 및 바이러스 감염 : 내이의 달팽이관에는 소리를 감지하고 듣는 세포들이 있다. 이 세포들은 여러 가지 원인 즉, 스트렙토마이신이나 가나마이신 등과 같은 항생제의 남용이나, 홍역, 볼거리, 백일해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다.

3. 소아난청 : 영유아기 때 소리에 대한 반응이 없거나 연령에 걸 맞는 기본적인 언어구사 능력이 없을 경우, 반드시 청력검사를 시행해 볼 것을 권한다. 언어를 습득하기 이전에 청력장애에 대한 진단이 이뤄져 치료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수술 등의 치료를 해도 평생 농아로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소아난청의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과

임신 중 모태감염이나 약물남용, 삼출성중이염 등이 있다.

4. 노인성 난청 :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나빠져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는 노인성 난청(難聽)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음성(傳音性) 및 감각신경성 난청일 경우도 있다. 노인성 난청은 대개 40대부터 시작돼 50대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5. 메니에르질환 : 속귀의 달팽이관과 세반고리관에 이상이 생겨 난청, 현기증, 귀울림 등을 일으키는 메니에르병은 그동안 서구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메니에르병은 1800년에 프랑스 의사 메니에르가 처음 발견한 병으로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스트레스, 귓속기관의 감염, 면역이상, 알레르기, 귓속혈관이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 돌발성 난청 : 갑자기 귀가 멍멍해지면서 들리지 않거나, 난청 발생을 전후해 이명 현상이 생기기도 하며, 난청 발생을 전후해 현기증과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지러움이 반복되지 않는 증상이 있을 때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7. 소음성 난청 : 주변의 잡다한 소음 때문에 소리를 잘 들을 수 없게 됐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소음 공해가 심해지면서 소음성 난청환자가 양산되고 있다.

## ◎ 치료



진찰소견과 여러 검사를 통하여 질병의 원인과 정도를 진단한 후 각각의 질환에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된다. 염증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 또는 수술치료를 하게 된다. 감소된 청력을 근본적으로 복구 시킬 수 있는 치료는 없으며 다만, 소음이나 이독성 약제 등 난청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해야 하며 귀에 문제가 있어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이가 들고 청력이 떨어졌다고 해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도장애성 난청의 경우에는 보청기의 착용이나 청각 재활치료를 하며 전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선천성외이도 폐쇄증이나 고막손상, 급·만성중이염, 경화증 등 치료 가능한 경우도 있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인공 달팽이관 이식수술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 ◎ Q&A

### 1. 어떤 경우 난청을 의심해야 하나요?

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들로써 유아, 소아, 청소년, 장년 층 등 연령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1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 발견하기 어려우나 중요한 지표로는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웅얼이가 없다는 것이다. 보통 생후 6개월 정도면 소리의 높낮이가 있고 리듬이 있는 웅얼이가 있어야 하나 난청이 있는 경우 웅얼이가 없고 10개월까지 웅얼이가 없는 경우 난청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웅얼이 뿐 아니라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경우, 주변 소리에 반응이 없는 경우 등도 난청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1세 전후에 한두 마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며 2~3세 무렵에는 활발하게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한다. 언어발달이 늦는 경우 난청을 의심해야 한다.

소아인 경우 TV를 가까이서 본다든지 뒤에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등 난청에 의한 여러 행동의 이상을 볼 수 있다. 청소년 혹은 성인의 경우 본인들이 난청이 있다는 것을 대개 알고 있다. 그러나 장년 혹은 노년층에서는 서서히 난청이 오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식당 혹은 교회, 강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야기를 다른 사람 보다 못 듣는 것을 느끼는 경우 난청을 의

심해야하고 어느날 이명증이 발생한 경우 이명증이 난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다.

## 2. 난청악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난청일 경우 청력이 점점 손실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구조적 이상이 있는지 다른 유전적 요인이 있는지 등을 알아내고 소음환경을 피하는 것이 좋다.

유소아의 경우 가장 많은 난청의 원인인 중이염의 조기 치료로 난청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감기 후에 많이 발생하는 급성중이염에서 만성중이염, 만성화농성 중이염의 연쇄고리를 조기에 막아야 한다.

완전히 청력을 상실한 농인 경우엔 조기 즉 2-3세 경에 인공와우이식을 통해서 청력을 회복하고 언어치료를 통하여 언어습득을 하는 경우 평생장애인의 굴레를 벗을 수 있다.

## ■ 보청기의 사용



### 1) 보청기의 사용 시기

난청이 있다고 해서 전혀 못 듣는 것은 아니다. 모든 주파수에서 110dB 이상의 큰소리조차 못 듣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개는 어느 정도의 큰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상태를 잔존 청력이라고 한다.

평균청력레벨이 약 40dB 이상이면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40dB 이하라도 생활 중 불편을 느낀다면 보청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음구별이 잘 안 된다든지, 전화소리를 잘못 알아듣는다든지, 회의 시 애로를 느낄 경우에 청력검사를 한 후 청력에 잘 맞는 보청기를 선택해서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 보청기의 올바른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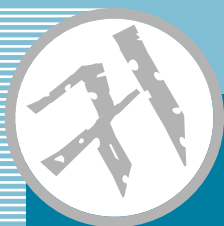
처음에는 낮익고 조용한 환경에서 1~2시간씩 보청기의 소리에 적응하는 훈련을 가지는 것이 좋으며 적당한 소리 크기에 적응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대화 중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미리 협조를 청하고 자기에 이야기 할 때는 천천히 분명하게 이야기 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교회나 모임, 강연회에서는 이야기를 듣기 좋은 앞자리나 중간 자리에 앉아 강연자의 말소리에 집중하며 TV나 라디오를 들을 때는 기계와 2~3m 정도 거리를 두고 앉는 것이 좋다.

전화기 사용 시에는 전화기를 보청기를 낀 귀에 대고 너무 밀착시키지는 말고 전화기의 위치를 이리저리 돌려보아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위치를 찾아야 한다. 보청기의 착용은 양쪽 착용이 좋은데 이는 우리 인간의 뇌 구조와 신체구조가 모두 양 방향의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참을성을 가지고 한 달 정도 적응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 3) 좋은 보청기란..?

보청기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연령·청력 조건·발음이다. 가령 유아의 경우는 귓속형 보청기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안전을 고려하여 보청기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보청기는 청력조건에 대한 고려가 우선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력 역치가 90dB를 초과하는 고도 난청자의 경우는 고막형보다는 강한 충력을 낼 수 있는 귀걸이형이나 포켓형 보청기가 유리하다.

이외에도 보청기는 주파수 특성 때문에 일반 보청기를 오랫동안 계속 착용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 목소리로, 여자가 남자 목소리로, 혹은 지나친 고음이나 저음으로 목소리가 고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목소리 조절을 위하여 해당 주파수 대역의 조절과 함께, 적절한 보청기를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 귀와 관련된 정보, 알고 갑시다

### 귀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

★ 어지럼증이 있으면 우황청심환을 먹어야 한다?

어지럼증은 중추신경 질환일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민간요법에 의존했다가 오히려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 원인감별을 위해 청력검사, 전정기능검사, MRI검사 등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비인후과 또는 신경과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

★ 귀가 크면 오래 산다?

귀는 놀랍게도 성인이 돼서도 조금씩 크다. 오래 살면 남보다 귀가 커져서 장수인은 귀가 커 보일 수밖에 없다. 오래 살아서 귀가 커졌다고 해야 옳다.

★ 안면마비가 있으면 중풍이 있는 것이고 침을 맞아야 한다?

안면마비의 원인이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은 다음, 꼭 감별해야 한다.

★ 고막을 다치면 수술해야 한다?

고막은 재생능력이 뛰어나므로 일단 염증 등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치료만 하면 대개 치유된다. 단, 이소골이 손상되거나 중이염, 고막 재생부전 등 증상에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 인공 와우 수술을 하면 정상인처럼 들을 수 있다?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인공와우는 달팽이 관이나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긴 하나, 꾸준한 적응 훈련과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귀 건강을 돕는 수칙

\* ‘귀지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상식으로 정상적으로 귀지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병적인 귀지도 있으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의 귀지는 세균의 침입과 세균의 발육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다. 팔꿈치 보다 적은 것으로 귀를 후비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귀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 귀가 가렵거나 또는 목욕 후에 면봉 등으로 귀를 후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 하는 행위이므로 고막의 손상, 또는 외이도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면봉의 사용은 가급적 줄이고 귀가 가렵거나 막힌 듯 한 느낌이 있으면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흔히들 워크맨이라고 불리는 귀에 이어폰을 끼고 회화 등의 공부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장시간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게 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게 된다. 가급적이면 귀의 이어폰 사용을 중지해 주는 것이 좋다. 디스코텍이나 시끄러운 공연장에는 자주 가지 않는 것이 귀의 보호를 위해 좋은 일일 것이다.

\* 삼출성중이염을 가진 환자의 부모들은 대부분 수영장이나 목욕 후에 귀에 물이 들어가서 이러한 질환이 발생했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중이 내에 염증이 생기고 이차적으로 농, 즉 삼출액이 고여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수영장에 가는 것을 금하거나 목욕 후에 귀를 면봉으로 닦는 것보다 감기에 안 걸리도록 평상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예방적 목적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도움말 : 이광선(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박용호(충남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